

임상심리학의 창시자 라이트너 위트머 (Lightner Witmer, 1867~1956)

이 현 수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많은 위대한 업적은 남겼지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수는 결코 적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본고에서 다루려고 하는 라이트너 위트머도 바로 그런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에 속한다고 본다. 그는 엔젤(Frank Angell, 1857~1939)이나 티치너(Edward Bradford Lee Titchener, 1867~1927)와 함께 분트(Wilhelm Wundt, 1832~1920)가 라이프치히에서 길러낸 미국의 초창기 심리학자요, 1892년에는 홀(Granville Stanley Hall, 1844~1924), 제임스(Williams James, 1842~1910), 레드(George T. Ladd, 1842~1921), 그리고 캣텔(James McKeen Cattell, 1860~1944)과 함께 미국심리학회 창설 멤버로 활약했다. 1896년 펜실바니아대학에 세계 최초로 '심리학진료소'(Psychological Clinic)를 개설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임상심리학(Clinical Psychology)이라는 새로운 학문체계의 초석이 되었다. 이 공로로 그는 임상심리학의 창시자요, 대부분 추앙을 받고 있다.

그는 두번에 걸쳐(1934~1935; 1935~1936) 펜실바니아임상심리학회의 회장을 지냈으며 1937년 펜실바니아대학에서 70세로 은퇴할 때 명예로운 학위(Doctoris in Scientia)를 받았다. 1946년 미국심리학회는 위트머를 위해 임상심리학50주년기념식을 성대히 치루었다.

이와같은 사실만을 보더라도 그는 실험심리학자

로서, 임상심리학의 창시자로서, 그리고 그 대부분으로 심리학사에서 자세히 다뤄져야 할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정평있는 교재로 많이 쓰이는 슬스의 저서(D. Schultz; A History of Modern Psychology. New York:Academic Press, 1982)나 우리나라 유일의 심리학자인 이의철의 저서(심리학사·서울대학교출판부, 1970)에서는 위트머에 대한 기술은 한 줄도 없다. 유일하게 보링(E. G. Boring)은 그의 저서 '실험심리학사'(History of Experimental Psychology. New York:Appleton-Century-Crofts, 1950)에서 위트머에 대해 서너군데서 기술하고 있다. 그나마라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 소개된 위트머는 분트교수의 실험실에서 공부한 미국의 심리학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임상심리학으로서의 교육이나 업적에 대해서는 한 줄도 쓰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트머가 심리학에 공헌한 것은 특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심리학자와 심리학사를 강의하는 극히 제한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위트머가 심리학에 공헌한 것을 소개하기 위해 그의 출생에서, 라이프치히수학까지, 심리진료소, 'The Psychological Clinic' 그리고 그의 인간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했다. 여기에 소개된

자료는 'American Psychologist'(1987, 42, 849~855)에 게재된 맥레이놀즈(Paul McReynolds)의 글에서 뽑은 것임을 여기에 밝혀 둔다.

출생에서 라이프지히 수학까지

위트머는 1867년 6월28일 필라델피아에서 약사인 아버지(David Lightner Witmer)와 평범한 가정주부인 어머니(Katherine Huchel)의 3남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나 1904년 37세 때 수필가인 레플리어(Emma Replier)와 결혼했다.

그는 펜실바니아대학시절(1884~1888)에 문학과 웅변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고 졸업후에는 중학교(Rugby Academy)의 영어교사로 사회생활이 시작되었다. 1년 후에 법관이 되기 위해 펜실바니아대학 법과에 들어 갔다가 다음해에 정치학과를 거쳐 심리학으로 전과하였다. 이 때 마침 캣텔(James McKeen Cattell, 1860~1944)이 실험심리학교수로 자리를 옮겨 왔고 위트머는 그의 조교로 채용되었다. 펜실바니아에 부임한 캣텔은 반응시간의 개인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위트머는 그를 돕기 위해 자료수집을 하다가 캣텔이 추구하는 반응시간의 개인차에 흥미를 가지게 된 나머지 장차 자신은 캣텔의 지도하에서 박사학위논문 쓰기로 결심하였다. 불행하게도 캣텔이 콜럼비아대학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됨에 따라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라이프지히로 분트(Wilhelm Wundt, 1832~1920) 교수연구실을 찾아가게 되었다.

위트머는 라이프지히에서 분트교수를 비롯하여 쾰페(Oswald Külpe, 1862~1915)와 슈트럼펠(Ludwig Strumpel)의 강의를 듣고 1892년 분트의 지도하에서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의 논문주제는 페크너(Gustav Theodor Fechner, 1801~1887)가 1876년에 발표한 심미적 가치이론을 바탕으로 한 개인차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지도교수였던 분트는 그것이 라이프지히 실험실의 전통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적격판정을 내리는 일까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위트머는 자타가 모두 인정하는 실험심리학자가 되었다. 펜실바니아대학연구실에 돌아온

그는 실제 실험심리학을 주제로 한 훌륭한 논문을 계속 발표하는 한편 실험심리학강의를 하였다. 1900년 초에 발표한 동등지각의 개인차에 관한 논문은 순수한 실험심리학적 의미만이 아니라 임상적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귀중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슬개반사에 대한 실험연구는 그를 실험심리학자라고 부르는데 조금치도 손색이 없었다.

심리진료소

1894년부터 펜실바니아대학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위트머를 포함한 심리학과 교수들이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였다. 또 그들이 강의도 하고 지도를 맡기도 하였다. 1896년 3월 위트머는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한 국민학교 교사로 부터 14세된 언어장애소년에 대한 진단 치료를 의뢰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위트머는 심리학자에게는 실험실연구도 중요하지만 이 소년과 같이 심리적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자신의 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같은 해 7월에는 그 연수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언어장애자는 물론, 정신박약자, 맹인,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진단치료의 문제까지 포함시켰다. 이 때까지도 '임상적 연구'(clinical study)라는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위트머는 임상심리학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두 가지 사실을 성취하였다. 즉 그 하나는 그가 'Pediatrics'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것으로 심리학에 있어서 실습의 필요성을 강조한 글이었고, 다른 하나는 보다 세세이셔널한 것으로 그는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심리학회에서 '심리진료소'(Psychological Clinic)라는 기관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모든 회원들에게 자세히 소개하였다.

위트머는 1908년 펜실바니아 웰링포드에 비행소년을 위한 기숙사(residential school)를 설립하여 자신이 그것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이것이 또한 세계 최초의 개인이 경영하는 심리진료소의 효시가 되었다. 그는 이것을 모체로 하여 드봉에 또다른 기숙사(Witmer School)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1921~

1940). 위트머의 제자인 비틀스(Morris Viteles)는 스승의 사상을 산업장면에 뿌리내려 직업상담소(Vocational Guidance)를 개설하여 산업분쟁해결에 크게 공헌하였다.

1900년 초에 위트머는 실험심리학이 아닌 임상심리학의 문제를 다룬 두 사람의 박사학위논문 지도하였다. 그중 한 편은 맥케이(A. J. McKey)의 논문, '동각과 특수감각에너지이론'이다. 맥케이는 이 논문으로 미국 최초의 임상심리학을 전공한 박사학위를 받았고 후에 윌슨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또다른 한편은 트위트마이어(E. B. Twitmyer)가 '슬개반사에 대한 연구'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공인되는 심리진료소의 역사는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위트머가 1896년 3월 14세 된 언어장애소년(Charles Gilman)의 진단치료를 의뢰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소년의 진단치료를 위트머에게 소개한 사람은 펜실바니아대학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위트머의 강의를 받았던 국민학교의 한 교사(Margaret Maguire)였다. 그녀는 심리학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 심리학자에 대한 기대도 매우 컸다. 그녀는 언어장애의 원인을 규명해주고 교육치료까지 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심리학자 뿐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와 같은 생각은 위트머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한다. 위트머는 이 소년의 언어장애를 단순히 기억의 발달장애로 보고 과학적 지식을 가진 자기만이 이 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환자로 장기간 관찰·조사해보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는 정신박약자와 귀머거리를 전담하고 있던 다른 교사(Mary Marvin)에게 진단 교육을 의뢰하였다.

1896년 3월 위트머가 처음으로 진단교육을 의뢰받은 14세된 언어장애소년 길만은 정신분석자들에게 매우 친근감을 주는 안나 O양과 직접 비교된다는 점에서 임상심리학자의 흥미를 크게 자극해주고 있다. 위트머의 관찰 진단에 의하면 그 소년의 지능은 보통수준을 넘고, 추리력도 건전하며, 그리고 유창하게 말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독서 및 철자쓰기 능력에 큰 결함이 있었다. 예를 들면 그는 was를 saw로 잘 못 읽었다. 한번 보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은 the나 an과 같은 단일철자뿐이었다. 글자 하나

하나를 잘 읽을 수 있으나 그것을 연결지워 읽지 못하였다. 글을 읽을 때 같은 음끼리는 잘 연결지워 나아갈 수 있었다. 기하도형에 대한 시각적 기억능력은 우수하나 단어기억능력은 그 수준이 매우 낮다. 그림을 잘 그리나 역사와 과학에 대한 흥미는 거의 없다.

1896년 위트머는 체계적 치료에 앞서 그 소년을 시각언어건망증으로 진단하였다. 교사의 적극적 협조로 그 소년에 대한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897년 4월 치료는 일단 중단하고 소년으로 하여금 가정에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습관을 갖도록 지시하였다. 1903년 7월 9일 위트머가 그 소년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 그로 인해 학교도 중퇴하였고 1907년 1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소년은 독서불능증으로 진단될 수 없다는 것이 위트머의 주장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독서불능증으로 진단하려면 그가 문자를 독파하는 능력이 거의 상실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년에서는 그러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은 그러한 능력을 습득할 기회마저 전혀 가져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소년은 시각언어건망증으로 진단되는 것이 옳다. 이러한 진단은 DSM-III에 따르면 학습능력장애의 유목으로 분류되어 실독증(dyslexia) 혹은 독서발달장애(developmental reading disorder)로 진단된다. 실독증이라는 진단개념은 1896년 몰간(Pringle Morgan)이 '선천성언어장애'(congenital word blindness)라는 이름으로 처음 학계에 소개한 것이다. 이는 연대상으로 위트머가 언어장애아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에 착수한 해와 꼭 일치한다. 이를 단순히 우연적 일치로 보아도 될려는지.

다른 한편 이 14세된 언어장애소년은 '유아성 자폐증'(infantile autism)으로 진단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부모가 정상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의 주의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공같은 것을 주면 장시간을 가지고 놀 수 있었다. 미각이 발달되어 있고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정도이다. 그래서 귀로 듣고 나면 곧 그것을 모방할 수 있다. 이 소년에 대

THE PSYCHOLOGICAL CLINIC

*A Journal for the Study and Treatment
of Mental Retardation and Deviation*

Editor:

LIGHTNER WITMER, Ph. D.,
University of Pennsylvania.

Associate Editor:

HERBERT STOTESBURY, Ph. D.,
The Temple College,
Philadelphia.

Associate Editor:

JOSEPH COLLINS, M. D.,
Post Graduate Medical College,
New York.

CONTENTS

	PAGE
CLINICAL PSYCHOLOGY. <i>Lightner Witmer</i>	1
AN INFANTILE STAMMER (BABY TALK) IN A BOY OF TWELVE YEARS. <i>Clara Harrison Town</i> , Resident Psychologist at Friends' Asylum for the Insane, Frankford	19
A JUVENILE DELINQUENT. <i>Edward A. Huntington</i> , Principal of Special School No. 3, Philadelphia	21
UNIVERSITY COURSES IN PSYCHOLOGY. <i>Lightner Witmer</i>	25
REVIEWS AND CRITICISM: "Child and Educational Psychology." The Psychological Bulletin, Vol. 3, No. 2, November 15, 1906, Edited by M. V. O'Shea	33
NEWS AND COMMENT	50

THE PSYCHOLOGICAL CLINIC PRESS
WEST PHILADELPHIA STATION, PHILADELPHIA, PA.

그림 1. The Psychological Clinic 1권 1호의 외표지

THE PSYCHOLOGICAL CLINIC

*A Journal for the Study and Treatment
of Mental Retardation and Deviation*

Subscription price, \$1.00 per annum (nine numbers). Single numbers,
20 cents. Foreign subscription price, \$1.25.

Published monthly except July, August and September. A single number will
contain twenty-eight or more pages.

The Psychological Clinic is published primarily in the interest of a large class of children, who manifest different degrees of retardation in mental and moral development. The number of such children is from five to fifty per cent of the school population, depending upon the point at which the line is drawn to separate those who are backward from those whose progress is considered normal.

The Psychological Clinic will present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conducted mainly through the examination and treatment of individual mental and moral peculiarities,—not necessarily abnormal,—associated with developmental phenomena.

This new field of Psychology and Pedagogy is one that touches the interests of physicians and social workers as well as of psychologists and educators.

The Psychological Clinic will also take cognizance of all forms of special work for mentally and physically defective children, juvenile delinquents and dependents. It will, therefore, make an appeal to teachers of blind, deaf or feeble-minded children, to teachers of physical education, and to all those having a philanthropic interest in improving environmental and other conditions to further normal development during the formative period of childhood.

EARLY NUMBERS WILL CONTAIN THE FOLLOWING ARTICLES

A Case of Chronic Bad Spelling—Aphasia visualis verbalis—due to Lack of post-natal Development.

The Role of Imitation in Physical Training.

A Blank for the Clinical Study of Retarded Children.

Will Training in Spastic Paralysis.

The Fifteen Months' Training of a Feeble-Minded Child.

A Blank for the Record of a Child's Development in Articulation.

By the Editor.

Two Years' Experience in a Public Day School for Backward Children.

By Clara H. Town, Resident Psychologist at Friends' Asylum for the Insane, Frankford. Formerly Teacher in Special School No. 2, Philadelphia.

Method of Obtaining Statistics of Retardation with the Assistance of School Principals and Grade Teachers.

By James E. Bryan, Superintendent of Schools, Camden, N. J.

The Backward Children of a City School.

By J. D. Heilman, Harrison Fellow in Pedagogy, University of Pennsylvania.

Clinical Studies of Retarded Children.

By George W. Twitmyer, Ph.D., Superintendent of Schools, Wilmington, Del.

Send subscriptions and all communications to

THE PSYCHOLOGICAL CLINIC PRESS,

West Philadelphia Station, Philadelphia, Pa.

그림 2. The Psychological Clinic 1권 1호의 내표지

The Psychological Clinic

VOL. I. No. 1.

MARCH 15, 1907.

CLINICAL PSYCHOLOGY.

BY LIGHTNER WITMER.

During the last ten years the laboratory of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has conducted, under my direction, what I have called "a psychological clinic." Children from the public schools of Philadelphia and adjacent cities have been brought to the laboratory by parents or teachers; these children had made themselves conspicuous because of an inability to progress in school work as rapidly as other children, or because of moral defects which rendered them difficult to manage under ordinary discipline.

When brought to the psychological clinic, such children are given a physical and mental examination; if the result of this examination shows it to be desirable, they are then sent to specialists for the eye or ear, for the nose and throat, and for nervous diseases, one or all, as each case may require. The result of this conjoint medical and psychological examination is a diagnosis of the child's mental and physical condition and the recommendation of appropriate medical and pedagogical treatment. The progress of some of these children has been followed for a term of years.

To illustrate the operation of the psychological clinic, take a recent case sent to the laboratory from a city of Pennsylvania, not far from Philadelphia. The child was brought by his parents,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Schools. Examination revealed a boy ten years of age, without apparent physical defect, who had spent four years at school, but had made so little progress that his ignorance of the printed symbols of the alphabet made it necessary to use the illiterate card to test his vision. Nothing in the child's heredity or early history revealed any ground for the suspicion of degeneracy, nor did the child's physical appearance warrant this diagnosis. The boy appeared to be of normal intelligence, except for the retardation in school work. The examination of the neurologist to whom he was sent, Dr. William G. Spiller, confirmed the absence of conspicuous mental degeneracy

한 임상적연구는 후속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The Psychological Clinic

위트머가 1907년 3월 15일에 창간한 심리진료소의 공식 학술지 이름으로 이는 임상심리학의 발달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 학술지는 1935년까지 28년간 지속되다가 폐간되었다. 이 학술지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1권1호에 게재된 내용을 그림 1, 그림 2, 그리고 그림 3에 소개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잡지에는 연구 보고, 이론, 논문, 사례연구, 그리고 기타 뉴스 등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을 위트머가 직접 집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임상심리학’(clinical psychology)라는 전문용어가 이 잡지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학술지의 표제는 위트머의 독창물이 아니라 1897~1901까지 프랑스의 두 의사(Paul Hartenbourg & Paul Valentin)가 발간하던 *Revue De Psychologie Clinique et Therapeutique* (The Journal of Clinical and Therapeutic Psychology)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다.

‘The Psychological Clinic’이 발간되기 전에 이미 새로운 전문적 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 어울리는 명칭을 찾지 못하다가 이 연구지가 창간되는 것을 계기로 명칭이 붙여졌는데 그것이 곧 ‘임상심리학’(clinical psychology)이다. 이 학술지에서 임상심리학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임상심리학은 분명히 의학과 깊은 관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이나 교육학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사회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많은 자료들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인즉 과학적 가치를 발견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문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고 임상심리학의 영역은 의사, 특히 정신과 의사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와 사회사업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상심리학자들이 다른 분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임상심리학’

(clinical psychology)과 ‘심리진료’(psychological clinic)라는 말은 서로 의미가 다른 것을 나란히 배열해 놓은 것 같이 생각된다.…… 나는 ‘임상’이라는 용어를 의학에서 빌려왔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는데는 가장 적합한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심리적 특징은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임상심리학의 방법은 발달된 것이다. 또 치료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 치료를 해야 한다. 대상이 아동이거나 성인이거나 간에 진단과 치료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는 임상적 용어로 기록되지 않으면 안된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트머가 임상심리학을 창시한 사람(founder)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를 단순히 임상심리학의 발달에 크게 공헌한 사람(contributor)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꾸준히 이끌고 갔다는 것과 어떤 운동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위트머는 분명히 전자에 속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임상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러 부족함이 없다. 그는 임상심리학의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꾸준히 이끌어 나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때 위트머는 분명히 임상심리학의 창시자로 그는 라이프지히에 심리학실험실을 창설한 분트와 직접 비교할 수 있다. 분트가 실험심리학의 비조라면 위트머는 임상심리학의 비조이다.

다음에는 창시자로서의 위트머가 강조하는 몇가지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그는 심리적 장애를 갖는 사람을 돕는 전문직업의 기초는 과학심리학에 두어야 하며 그러한 기관은 심리학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책임자는 심리학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가 남긴 공적은 많이 있다. 첫째 새로운 전문직업으로서 임상심리학의 용어를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둘째 임상심리학자양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스스로 실천하였고, 셋째, ‘Psychological Clinic’이라는 학술잡지를 창간하여 많은 계몽자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넷째, 임상심리학자로서 많은 전문활동에 참여하여 임상심리학

자의 모델이 되었다. 그외에 학교심리학(school psychology)과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신박약자치료를 위해 '진단교육'(diagnostic teaching)이라는 방법을 썼는데 이는 지금도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한다.

위트머의 인간성

1920~1930년대에 위트머의 교육을 받은 그의 제자, 친구, 동료들의 구술에 의해서 그의 인간성이 밝혀졌는데 그는 (1) 자신감이 있고 (2) 자기주장을 잘하고 (3) 독단주의적 경향이 농후하고 (4) 매우 매력적인 데가 있고, 그리고 (5) 농담을 썩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위트만(Walt Whitman)이라는 시인을 존경하였다. 임상활동의 동료들에 의하면 그의 임상적 기술의 수준은 최상급이라고 한다. 그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들의 주장인 즉, 위트머는 매우 거만하고 고압적인 인물이라고 한다. 이는 위트머의 선천성이라기 보다는 라이프지히 학풍의 외적 표현의 일부일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위트머의 업적을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들의 주장인 즉 과학자라고 자부하는 위트머는 너무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위트머의 현주소를 알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는 실험심리학과 임상심리학의 틈바구니에 끼여서 분투, 혹은 고투하던 위치였기에 직관에서 완전히 탈피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또 다른 제자들은 그의 연

구 업적이 1차대전 이후 크게 줄어 들었고 임상심리학에 끼친 영향도 별로 없었다고 한다. 이는 심리학의 흐름에 큰 변혁을 역행할 수 없었다. 즉, 위트머 시대에 임상장면에서 강조되던 지능검사법과 정신분석이론은 쇠퇴하고 새로운 운동이 싹트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고령이 되면서 위트머는 은둔생활로 일관되었다; 즉 이미 앞에 언급하였지만 미국심리학회 창시멤버의 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멤버들까지도 전혀 만남이 없고 학회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생활로 소일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임상심리학의 발전에 끼친 공로까지 잊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미국에는 위트머의 심리진료소로 모방한 진료소가 많이 생겼고, 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임상심리학이나 그와 관련되는 부서에서 중진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임상심리학은 위트머 시대의 것과는 크게 다르다. 그때의 임상심리학은 정신의학적 색채가 농후하였고, 정신병리학적 방법에 크게 의존하였으나 오늘날의 임상심리학은 심리학에 기초를 두고 과학적 방법을 쓰고 있다. 대상만 보더라도 크게 다르다.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장애나 정신박약등이 관심의 전부였지만 오늘날의 임상심리학자들은 아동의 문제등은 말할 것도 없고 성인의 여러 가지 문제—정신적 사회적 문제, 성문제, 대인관계 등—를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나 위트머가 임상심리학을 창시할 때 강조했던 심리학자로서의 기본태도는 수정이나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臨床心理學會誌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88, Vol. 7, No. 1, 149~157

LIGHTNER WITMER(1867~1956) :
As the Founder of Clinical Psychology

Hyun Soo Lee
Chungang University

Lightner Witmer was one of the American students who took his doctoral degree under Wilhelm Wundt at Leipzig, and also one of the charter member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 1896, he inaugurated the first psychological clinic at University of Pennsylvania. As a experimental psychologist, he played a number of crucial role in establishing and defining the clinical psychology as a helping profession. Clealy he was one of the great contribu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y, yet he remains a shadowy, little known figure. This article summaries his life, career, and work without criticism.